

광주·전남 임금체불자 1만1206명 달해

광주 5207명 전년비 소폭 늘어...체불액 409억

조선업 구조조정 전남 서남권 133억...41% 급증

고용노동청, 13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추석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근로자 임금 체불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등 사업체 규모가 적을 수록 체불임금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지역 사업장의 임금체불 접수자수는 1만1206명으로 지난해 9330명보다 1876명 늘었다. 체불금액은 409억원으로 전년 437억원보다 28억원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권(광주, 나주, 담양, 영광, 장성, 함평, 화순, 구례, 곡성)은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지역 근로자는 5207명으로 집계됐다. 체불액은 18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60명, 276억원과 비교하면 체불금액은 96억원(34.7%) 줄었지만, 피해자 수는 47명(0.9%) 늘었다.

산업별로 제조업(924명·55억원)과 건설업(1646명·53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089명·23억원) 체불 규모가 컸다.

조선업중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전남 서남권의 임금체불은 133억2000만(36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억1800만(2520명)보다 41% 증가(전국 8.1% 증가) 증가폭이 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1% 증가해 조선업중의 경기불황이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또 도산된 회사 소속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도 199%(27억8400만원) 늘

었다.

전남 동부권도 임금체불이 96억3100만(근로자 2557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50명에 67억5000만원과 비교해 29억2600만원(43.6%) 증가한 것이다.

임금을 체불한 890여개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27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7억원 등이다.

하지만 문제는 임금체불이 주로 5인 미만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권 임금체불업체를 규모별로 나눠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1566개소 1937건(2526명) 16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5~29인 835개소 1299건(1786명) ▲30~99인 144개소 236건(475명) ▲100인 이상 53개소 205건(4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8월31~9월13일)'을 설정하고 청산활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중에는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체제로 체불임금의 상담·접수를 하며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을 통한 예방활동을 물론, 체

■ 광주권 규모별 임금체불업체

사업장 규모	업체수	체불건수
5인미만	1566개소	1937건(2526명)
5~29인	835개소	1299건(1786명)
30~99인	144개소	236건(475명)
100인이상	53개소	205건(420명)

불임금 발생업체에 대한 현지 출장 등의 방법으로 임금체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체불과 재산은,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엄중하게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체당금 신속 지급, 사업주 저리 융자, 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 기존 정책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김양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며 "최근의 내수·수출부진으로 경제여건이 어렵지만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업, 공공기관 등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영란법’ 대응 설명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1일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들의 혼선 방지와 청렴사외 구축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가 개최됐다. <광주상공회의소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32.72 (-1.93)
- ↑ 금리 (국고채 3년) 1.33% (+0.03)
- ↑ 코스닥 671.29 (+7.60)
- ↑ 환율 (USD) 1122.10원 (+7.30)

효성, 중국 시장 공략한다

최대 복합재료 전시회 ‘2016 상하이 CCE’ 참여

효성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중국 최대 복합재료 전시회인 ‘2016 상하이 CCE’에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효성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서 중국 고객을 상대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상하이 CCE는 탄소섬유 제조 업체, 주요 복합재료·설비업체들이 참가하는 전시회로 작년에는 425개 업체가 참가했다.

효성은 이번 전시회에서 자체기술로 개발한 탄소섬유 브랜드인 ‘탄섬(TAN-SOME)’이 적용된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CNG 용기, 자동차(오토바이)용 드라이브 벨트 등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제품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참가 기업의 70% 이상이 중국 기업인 만큼 효성은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고객 발굴뿐만 아니라 탄소섬유를 적용한 제품, 복합재료 부문의 기술개발과

용도확장을 위한 업계 동향 파악에도 나섰다.

이와 함께 탄소강소기업 신영페트(주), ㈜피치케이블과 공동부스를 운영해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신영페트(주)는 재활용 페트(PET)에 탄소섬유를 적용해 압축강도를 증가시킨 자동차 부품, 건축자재 등을 전시해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탄소발열엔지 및 방석 등을 제조하는 ㈜피치케이블은 높은 에너지 효율과 부식이 없다는 강점을 내세워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한광서 효성 탄소재료사업단장(상무)은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해 국내 감소탄소·복합재료 기업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소비자물가 상승률 16개월만에 최저

8월 0.4% 상승 그쳐... 채소값·수산물값은 급등

재유가 영향이 계속되고 전기요금도 내리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기록적인 폭염 속에 공급량이 줄면서 일부 채소 가격은 폭등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달 상승률은 2015년 4월 0.4%를 기록한 이후 16개월 만에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4월 1%대를 기록한 뒤 4개월 연속으로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8%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을 0.37%포인트 끌어내렸다.

재유가와 정부의 전기요금 7~9월 한시 인하 조치는 가스·전기요금 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기·수도·가스요금 가격은 12.6% 떨어졌고 전체 물가 상승률을 0.57%포인트 끌어내리는 효과를 냈다. 폭염 탓에 농·축·수산물 1%

상승했다. 특히 수산물은 6.5% 상승해 물가상승률을 0.07%포인트 끌어올렸다.

서비스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 상승했고 이중 집세는 2.5% 올라 서비스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의류·신발은 2.0%, 음식·숙박은 2.3% 상승해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았으며 식료품·비주류음료는 0.5%, 주류·담배는 0.5% 올랐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1.1%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1.7%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0.6% 떨어지면서 2015년 9월 -0.2%를 기록한 이후 11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신선품지수는 2.8% 상승했으며 특히 신선품(생선과 조개류)이 7.9% 올라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신선품지수는 지난 6월 1.7% 하락한 이후 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연합뉴스

전남 건설경기 위축

2분기 수주실적 5048억...전년비 43.8% 감소

SOC 예산 8.2% ↓ 공공기관 발주도 줄어들 듯

전남 지역 건설경기가 정부의 주택공급 축소 방침 등에 따라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남지역 건설 수주실적은 건축과 토목을 포함해 5048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976억9400만원에 비해 43.8% 감소한 수치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건설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건설기성 등 동행지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더구나 올해 추경예산 편성에서 SOC 관련 예산이 배제된데다, 내년도 정부에

산안에도 경기부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SOC 예산이 전년 보다 8.2% 감소한 21조8000억원만 편성됐다.

또 조달청은 지난해 31조6000억원 보다 5.6% 감소한 29조8000억원 규모의 공공 부문 시설통사 발주계획을 올해 세우고 있어 하반기 공공 신규공사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건설협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국내 건설수주는 등락을 반복한 가운데 하반기 역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의 소규모 공사 발주는 있지만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발주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땅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시세 - 33억원
- 매매 - 상담 후 결정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단기투자 최고지역!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곡성, 농가 전원 주택

- 곡성군 입면 송전리 233-6번지
- 대지 72평, 건물 28평(실평), 텃밭
- 1층, 2012년 준공, 시멘트 벽돌조
- 광주에서 25분, 금호타이어에서 1분
- 시세 8천만원, 매매 5200만원

청풍동, 임야

- 북구 청풍동 산272번지
- 2339평, 신촌마을 부근
- 인근까지 차량통행 가능
- 시세 3천만원
- 매매 - 1500만원

나주, 세지면 임야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산 12-4번지
- 89평, 2차선 간선도로에 접함
- 현재 밭으로 이용 중, 세지 복초 인근
- 시세 1천만원
- 매매 - 330만원
- 급매 (9월 5일까지)

싸고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매매합니다! 회사직거래 / H.010-3605-5000

장성, 전원주택지

- 동화면 남산리 1073-7번지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코너
- 36세대 중 20세대 거주 중
- 시세 1억, 주변환경 깨끗
- 매매 - 7200만원

나주, 근린주택

- 공산면 금곡리 877-2번지
- 1층, 대지 42평, 건물 43평
- 농협건너편, 2차 대로에 접함
- 시세 8천만원, 위치 좋음
- 매매 - 5200만원

장성, 서삼면 농지

- 서삼면 장산리 691-1번지
- 333평, 코너, 교통최고 요지
- 생산관리지역, 축령산 5분
- 시세 1억 3천만원,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9900만원
- 전원주택, 펜션 최고 장소